

鳥の劇場2020年度プログラム<国際共同プログラム>

새극장 2020 년도 프로그램 <국제 공동 프로그램>

共生社会東アジアモデル構築事業

공생사회 동아시아 모델 구축사업

日韓共同プロジェクト「演劇で編む『共に生きる』」

한일 공동 프로젝트 “연극으로 엮어내는 <함께 살다>”

『とある村』リーディング公演+ライブ配信

<어느 마을> 리딩 공연+라이브 방송

++日本編 日本編

3月2日(火)13:30~(上演時間:1時間30分を予定)ライブ配信あり

3월 2일 (화) 오후 1시 30분부터(공연 시간 :1시간 30분 예정) 라이브 방송

アフタートーク 同日 15:30~(60分間を予定)ライブ配信あり

애프터토크 당일 오후 3시 30분부터 (60분 예정) 라이브 방송

会場:シアターぼぼ(無観客上演)

장소 : 씨어터 포포 (무관객 공연)

++한국편 韓国編

3월 4일 (목) · 5일(금) 오후 7시 00분부터 5일에만 라이브 방송

3月4日(木) · 5日(金)19:00~ 5日のみライブ配信あり

애프터토크 5일에만 라이브 방송

アフタートーク 5日のみライブ配信あり

장소: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실험무대

会場:韓国芸術総合学校 演劇院 実験舞台

+++++

줄거리 / 이연주

어느 마을. 마을의 구성원들은 각자의 역할을 한다.
사람들은 일을 하고, 동물은 각자의 생산 및 번식을 한다.
마을 사람들의 주식은 계란으로 만든 음식이다.
그러던 어느 날, 사람들은 닭장의 닭들이 알을 낳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마을 사람들은 생존을 위한 방법을 찾아간다.

+++++

『とある村』 あらすじ

物語の舞台である「とある村」では、卵がとても大切な食べ物となっている。村人たちは卵を食べて働く意欲を湧かし、毎日それぞれの仕事をこなす。しかしある日、鶏が卵を産めなくなってしまった。獣医師によると鶏がうつ病になったらしい。はじめ村人たちは鶏を心配するが、卵が無いストレスから仕事も満足に出来なくなり、次第に村全体が不安定になっていく…。

+++++

ご挨拶/인사말

鳥の劇場 芸術監督 中島諒人 / 새극장 예술감독 나카시마 마코토

韓国芸術総合学校と、「障がい」という今日的なテーマで共同事業ができることを光榮に思う。今年はコロナ禍のため、直接会っていっしょに演劇作品を作るという当初の予定は変更せざるを得なかったが、ビデオ会議や映像のやりとりなどを通じて、ていねいに日韓双方の状況を共有できたことは、逆にこの大きなプロジェクトの始動のためには良かったかもしれない。何しろこの事業は、日本と韓国というとかく壁ばかりが意識されがちな関係の中で、演劇の創作を通じて障がいという壁を超えているんな人が共に生きることの豊かさを発見し深めていこうという壮大なものだ。けれどその壮大さにも関わらず、着手してみてもすぐ分かった、このコラボは生きることや表現することの根本に人を立ち帰らせる力を持っている。リモートの交流を通じて、本質的な果実をすでに生み始めている。「とある村」プロジェクトのネットで公開している映像、リーディング上演、トークなどを通じて、今回生まれた可能性の芽を是非多くの方に知っていただきたい。現代生活の中で我々が忘れがちな、他者への優しさや寛容さという人間の本性について、心の深いところで何かを思い出させてくれると思う。

한국예술종합학교와 '장애'라는 오늘날에 맞는 주제로 공동 사업을 하게 된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다.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직접 만나서 연극 작품을 함께 만든다는 당초의 예정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으나 영상 회의와 동영상 교환을 통해 한일 쌍방의 상황을 꼼꼼하게 공유할 수 있었던것이 오히려 이 큰 프로젝트의 시동을 위한 힘이 된 것 같다. 한일관계라고 하면 '벽'만 떠올리기 쉬운 관계지만, 이 사업은 연극 창작을 통해서 장애라는 벽을 넘어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삶의 풍요로움을 발견하고 발전시켜가려는 장대한 프로젝트다. 하지만 그 장대함에도 불구하고 시작부터 바로 깨달았다. 이 콜라보레이션은 우리를 삶과 표현의 근본으로 되돌아가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다. 원격 교류를 통해서도 이미 본질적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

‘어느 마을’ 프로젝트의 인터넷 공개 동영상, 리딩 공연, 토크 등을 통해서 이번에 피어난 가능성의 새싹을 꼭 많은 분들께 보여드리고 싶다. 현대생활 속에서 우리들이 잊어버리기 쉬운, 타자에 대한 배려와 관용이라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 마음 속 깊은 곳에서 뭔가를 일깨워 줄 것이라 믿는다.

<어느마을> 프로젝트의 가능성/ 「とある村」プロジェクトの可能性

이성곤 李星坤 / 韓国芸術総合学校教授 李星坤 イ・ソンゴン

<어느 마을> 프로젝트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의 <주인없는 땅>이 새의연극제에 초청받으면서 논의가 시작되었다. 당시 새의극장은 베세토연극제의 일환으로 대학연극제를 조직했다. 거기에 우리가 초청을 받은 것이다. 한국예술종합학교와 새의극장은 MOU 를 맺고 교류를 약속했다. 민간극단과 국립대학 간의 교류협정은 흔한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 ‘장애’를 주제로 <어느마을>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것이 기쁘다. 장애는 조건이 아니라 예술의 풍부한 주제다. 최근에는 좁은 의미의 ‘장애’ 개념에 가두기보다는 문화다양성 구도 속에서 새롭게 정의하려고 시도한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이사나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협업, 장애인 관객을 위해 만들어진 연극 등을 포괄하여 포용적 예술(inclusive arts)로 재배치하자는 의견도 있다. 전통적 연극미학 개념을 전복하는 미학적 가능성을 제시해주기도 한다. <어느 마을> 프로젝트가 그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나아가 무역갈등으로 경색된 한일 관계가 풀리는 데 작은 계기라도 될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을 것 같다.

「とある村」プロジェクトは、韓国芸術総合学校演劇院の「主なき土地」が鳥の演劇祭に招聘されたことから議論が始まったものである。当時、「鳥の劇場」は、BeSeTo 演劇祭の一環として大学交流を企画した。そこに私たちが招聘されたというわけだ。韓国芸術総合学校と鳥の劇場は MOU を締結し交流していく事を約束した。民間劇団と国立大学の交流協定は稀な事である。

「障がい」をテーマに「とある村」プロジェクトを進めることになったことは何よりも嬉しい。障がいは条件ではなく芸術の豊かなテーマだ。最近では、狭義の「障がい」という概念に縛られるより文化の多様性の構図の中で新たに定義をしようと試みている。障がい者だけでなく、障がい叙事、障がいのある人とない人のコラボレーション、障がいのある観客のために作られた演劇などを包括して、包容的芸術(inclusive arts)に再構成しようという意見もある。伝統的な演劇美学の概念を覆す美学的可能性を示してもいる。「とある村」プロジェクトがその可能性を見せてくれたらと思う。ひいては、貿易摩擦で冷え込んだ日韓関係の改善の小さなきっかけにでもなってくれば、それ以上望むものは何もない。

작가의 글 / 作家의 코멘트

이연주 / 이·콘쥬

우리는 지금 함께 살고 있나요? 이번 작업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입니다. 살아가고 살아내는

모든 존재들에게 ‘우리’와 ‘함께’라는 단어는 참 쉽게 아우르는 동시에, 쉽게 경계를 짓는 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현재의 우리는 어떠한 방식으로 함께 살고 있나요? 극장에서 함께 경험하고 존재하던 시간이 더 이상 쉽지

많은 일이 되어버린 지금, 그동안 극장은 어떤 경험을 했는지도 다시 묻게 됩니다. 그럼에도 서로가 서로를 온전히 마주하는 시간을 상상합니다. 함께 고민을 나눠주신 한국과 일본 제작팀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私たちは今、共に暮らしているのでしょうか？ これは、本作品を準備しながら最もよく頭に浮かんだ疑問です。生きとし生けるものすべての存在に対し、「私たち」や「一緒に」という言葉は、とても安易に皆を「ひとつ」にしてしまう言葉であると同時に、簡単に境界線を引ひいてしまう言葉でもあると思います。今の私たちはどんなやり方で共に暮らしているのでしょうか。劇場で共に経験し共にいることがもう簡単には許されない今、これまでの劇場を廻る蓄積を問い直すことになります。それでも、皆が互いにしっかりと向き合う時間に思いを馳せます。この悩みを分かち合っていたいただいた韓国と日本チームの皆さまに心から感謝いたします。

=====

++日本編 日本編

演出ノート/연출의 글

演出家 もりながまこと / 연출가 모리나가 마코토

私たちの「とある村」は障害のある出演者のみで構成されています。身体の動きや声がとても微細な人や、字を読み取ることが得意でない人、そして発声がとてもゆっくりな人たちです。同じ身体の人は一人もいません。みんな違います。身体の在り方がそれだけ多様であるということは、それだけ“言葉がある”ということです。今、私たちの社会はコロナ禍にあります。世界のあらゆる社会システム・概念が脅かされています。演劇もまた、その表現の存在そのものが脅かされています。この状況の中で、私たちは、これからどのような概念で社会の仕組みを考え、生きていけばよいのか。このリーディング作品は、そのことのヒントのようなものについて、演劇という表現から疎外されている人たちからの演劇的提示です。それはわずかなともしびかもしれませんが、観る人ひとりひとりの表現する力、生きる力になりますように。本作品は、稽古を重ねて記録した音声や映像に、本番で演じられる出演者の演技を重ねながら、インターネットを通してライブ映像で観ていただきます。皆さんのところに光が届くことを願っています。

우리의 '어느 마을'은 장애인 출연자들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체 움직임과 목소리가 아주 미미한 사람, 글자 읽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 그리고 발성을 아주 천천히 하는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몸을 가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신체 상태가 다양하다는 것은 그만큼 다양한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세계의 모든 사회 시스템과 개념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연극도 그 표현의 존재 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앞으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사회 구조를 생각하며 살아가면 되는 걸까요? 이 리딩 공연은 그 힌트가 되어줄 것을 찾아, 연극이라는 표현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보여드리는 연극적 제시입니다. 이것은 아주 작은 등불일지도 모르지만 관람하시는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표현하는 힘, 삶의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작품은 연습기간동안 기록한 음성과 영상에 공연 당일 출연자의 연기를 겹쳐서 인터넷 라이브 영상으로 선보여 드립니다. 여러분께 빛이 닿기를 바랍니다.

アートセンターHANA 副施設長 佐藤拓道 / 아트센터 HANA 부시설장 사토 히로미치

私は普段、障害のあるメンバーのケアをしています。そして、自分の演劇経験を生かし演劇プログラムも担当しています。これまで私達は、即興や経験談、昔話を元に演劇を創作してきました。台本に取り組むのは初挑戦でした。障害のあるメンバーにとっては大きな挑戦。苦しくも楽しい日々でした。台本は様々な解釈できる内容で、なかなかの強者。この演劇を使って障害のある人が遊べる方法を考える。日々、暗中模索でした。そして今も。

평상시 저는 장애를 가진 멤버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연극 경험을 살려서 연극 프로그램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즉흥으로 또는 경험담과 옛날 이야기를 바탕으로 연극을 창작해 왔습니다. 대본으로 연극을 만드는 것은 이번이 첫 도전이며 장애를 가진 멤버들에게는 큰 도전이었습니다. 고생도 했지만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대본은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라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이 연극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놀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면서 매일매일 암중모색을 거듭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たんぽぽの家 スタッフ 蔵元徹平 / 탄포포노이에 스태프 쿠라모토 텃페이

僕はたんぽぽの家のスタッフでダンサーです。演劇メンバーとは、稽古以外の時間の方が長く時を過ごしています。車椅子に乗っているこの方は、自分で動くことはできないけど、いつもいろんなことを「見てる」よなあ。この人はいつもただ立っていて、その「立ち姿」がいいよなあ。日々の様子を、ダンスという視点で数シーン演出しました。韓国の「とある村」という戯曲と日本の「とある福祉施設」のたんぽぽの家が共同体になれたなら幸いです。

저는 탄포포노이에 스태프 겸 댄서입니다.

연극 멤버들과 연습 이외에도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휠체어를 타는 이 분은 혼자 움직일 순 없지만 항상 많은 것을 잘 관찰하시는구나. 이 분은 항상 그냥 서 있는데 그 모습이 참 멋지구나.’

이런 평소 모습에 댄스라는 관점을 가미해 몇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한국의 희곡 ‘어느 마을’과 일본의 ‘어느 복지 시설’인 탄포포노이에가 공동체가 됐다면 좋겠습니다.

スタッフ・キャスト/스태프・배우

作/작 : 이・콘쥬 이연주

日本語翻訳/일본어 번역 : 이・혼이 이홍이

演出/연출 : 모리나가 마코토 모리나가 마코토

演出助手/조연출 : 藤拓道 사토 히로미치・蔵元徹平 쿠라모토 텃페이(たんぽぽの家・アートセンター HANA)

配役/배역

劇場長1 극장장1 田井克典 타이 카츠노리

劇場長2 극장장2 山口広子 야마구치 히로코

劇場長3 극장장3 本田律子 혼다 리츠코

工場長 공장장 下津圭太 시모츠 케이타로

調理師 요리사 河野望 카와노 노조미

農夫 농부 たーやん 타아안

心理療法士 심리치료사 大西照彦 오오니시 테루히코

獣医師 수의사 上埜英世 우에노 히데오

卵・鶏 달걀/닭 河口彰吾 카와구치 쇼고

太陽 태양 清水要一 시미즈 요이치

声の出演 목소리 출연 北川憲一 키타가와 켄이치

友情出演 우정 출연

鶏 닭 (故)松本圭示 (고) 마츠모토 게이치 2015年7月31日永眠 2015년 7월 31일 영민

黒子 스태프 行方雄大 나메카와 유다이 菱川瑞姫 히시카와 미즈키 上園梨沙 우에조노 리사

佐藤拓道 사토 히로미치 藏元徹平 쿠라모토 텃페이

舞台スタッフ/무대 스태프

音響/음향 : 島田達也 시마다 타츠야 河合陽三 카와이 요조(リバーフューズ合同会社)

照明/조명 : 魚森理恵 우오모리 리에 照明助手/조명 어시스턴트 : 木内ひとみ 키우치 히토

ライブ配信・映像制作/라이브 방송・영상 제작 : 加藤文崇 카토 후미타카(レ・コンテ)

早川聡 하야카와 사토시 川崎麻耶 카와사키 마야

西口由梨 니시구치 유리

衣装製作/의상 제작 :

是永ゆうこ 코레나가 유코 (아트센터-HANA 아트센터 HANA 스태프 스태프)

松村賢二 마츠무라 켄지 (아트센터-HANA 아트센터 HANA 멤버 멤버)

中村真由美 나카무라 마유미 (아트센터-HANA 아트센터 HANA 멤버 멤버)

小道具製作/소도구 제작 :

松谷可椰子 마츠타니 카야코 (아트센터-HANA 아트센터 HANA 스태프 스태프)

東知彩貴 아즈마 치사키 (아트센터-HANA 아트센터 HANA 스태프 스태프)

水田篤紀 미즈타 아츠키 (아트센터-HANA 아트센터 HANA 멤버 멤버)

富丸風香 토미마루 후우카 (아트센터-HANA 아트센터 HANA 멤버 멤버)

中野貴太 나카노 타카히로 (아트센터-HANA 아트센터 HANA 멤버 멤버)

福岡左知子 후쿠오카 사치코 (아트센터-HANA 아트센터 HANA 멤버 멤버)

手話通訳/수화통역 : 一般社団法人 奈良県聴覚障害者協会 일반 사단 법인 나라현 시청각 장애자협회

通訳・翻訳/통역·번역 : 田川智子 타가와 토모코

協力/협력 : たんぽぽの家 탄포포노이에 아트센터-HANA 아트센터 HANA

企画・制作/ 기획·제작 : 鳥の劇場 새극장

=====
++한국편 韓国編

연출의 글 / 演出家のコメント

정성경 / チョン・ソンギョン

끊임없는 적응과 변화, 그것을 넘어서 진화까지. 날로 급변하는 세상에서 생존하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될 말 같습니다. 또한 그러한 말들이 어떤 확고한 '목표'와 결합될 때, 실제로 존재하는 다양한 차이들을 극복하려 하거나 외면하기도 쉬워집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사람일 수는 있을까, 있는 그대로 살 수는 있을까. 그런 질문이 떠오를 즈음 〈어느 마을〉을 만났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과연 당연

한지, 그렇지 않다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는 작업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終わりのない「適応」と「変化」、そして、それを越えての「進化」。この言葉は、日々急変する世の中で生存するために、なくてはならない言葉であると思います。また、その言葉が、ある確かな「目標」と結びついた時は、現実に存在する様々な「差」を乗り越えようとする 것도、逆に無視したりする事も容易にできてしまいます。そこでふとある疑問が浮かびました。一人一人がその人らしく存在できるのだろうか。ありのまま生きられるのだろうか。ちょうどそんなことを考えていた時、「とある村」に出会いました。当たり前だと思っていたことが本当に当たり前なのか、もしそうでなければ何が出来るのか。改めて考えてみる機会となりました。一緒に参加して下さった皆さまに感謝申し上げます。

작 이연주 전문사 연극원 극작과 졸업

作 イ・ヨンジュ

연출 정성경 전문사 연극원 연출과 17

演出 チョン・ソンギョン

총괄 드라마터그·번역 이흥이

總括 드라마ターグ/翻譯 イ・ホンイ

출연

出演

강보람

カン・ボラム

강선자

カン・ソンジャ

강희철

カン・ヒチョル

김범진 홍선우 전문사 연극원 연기과 16

キム・ボムジン

Anupam Tripathi 전문사 연극원 연기과 18

アヌパム・トリパティ(Anupam Tripathi)

홍선우 전문사 연극원 연기과 16

ホン・ソヌ

수어통역 장진석 신선아 운영표

手話通訳 チャン・ジンソク、シン・노아、윤·ヨン피오

기획 정유경 전문사 무용원 예술경영과 19

企画 チョン·ユギョン

드라마터그 김현지 전문사 연극원 연극학과 19

ドラマターグ 김·히ョン지

배리어프리 매니저 강보름 전문사 연극원 연출과 18

バリアフリーマネージャー 칸·볼름

무대디자인 김나은 예술사 연극원 무대미술과 졸업

舞台デザイン 김·나운

조명디자인 곽유진 예술사 연극원 무대미술과 졸업

照明デザイン クァク・ユジン

의상디자인 이예원 예술사 연극원 무대미술과 17

衣装デザイン イ・イエウォン

소품디자인 정결 예술사 연극원 무대미술과 졸업

小道具デザイン チョン・ギョル

음악감독 김진하 전문사 협동과정 음악극창작과 17

音楽監督 キム・ジンハ

무대감독 김지은 예술사 연극원 연출과 졸업

舞台監督 キム・ジウン

조연출/영상 오퍼레이터 조수빈 예술사 연극원 연출과 17

演出助手/映像オペレーター チョ・스빈

그래픽디자인 이민지 예술사 무용원 이론과 예술경영전공 19

グラフィックデザイン イ・민지

사진 김솔

写真 キム・솔

영상 플레이슈터

映像 プレイシューター

영상자막 장주희

映像字幕 チャン・ジュヒ

기술감독 임건수

技術監督 イム・ゴンス

조명감독 홍선화

照明監督 ホン・ソンファ

음향감독 고태현

音響監督 コ・테ヒョン

제작주임 송기선

制作主任 ソン・ギソン

제작감독 권연순

制作監督 クォン・ヨン순

객석감독 정예림 예술사 연극원 연극학과 예술경영전공 19

客席監督 チョン・יע림

음향오퍼레이터/셋업철거 김민지 외부

音響オペレーター/仕込み/バラシ キム・민지

조명/음향오퍼레이터 조연희 예술사 전통예술원 한국예술학과 18

照明/音響オペレーター チョ・ヨンヒ

조명보조 하유미 예술사 연극원 무대미술과 19

照明アシスタント ハ・ユミ

조명보조 김윤지 예술사 연극원 무대미술과 19

照明アシスタント キム・ユンジ

조명보조. Sabina Ikhsan 예술사 연극원 무대미술과 19

照明アシスタント Sabina Ikhsan

조명보조/무대제작 정희주 예술사 연극원 무대미술과 19

照明アシスタント/舞台制作 チョン・ヒジュ

무대제작 문정우 예술사 연극원 무대미술과 19

舞台制作 ムン・ジョン우

셋업철거 안소정 예술사 음악원 지휘과 합창지휘 18

仕込み/バラシ アン・ソジョン

셋업철거 김지오 예술사 미술원 조형예술과 19

仕込み/バラシ キム・지오

셋업철거 권영은 예술사 연극원 연기과 17

仕込み/バラシ 권영은・콘운

셋업철거 원혜경 예술사 음악원 기악과 17

仕込み/バラシ ウォン・ヘギョン

셋업철거 이라임 예술사 연극원 연출과 17

仕込み/バラシ イ・ライム

셋업철거 정진웅 예술사 연극원 연출과 졸업

仕込み/バラシ チョン・ジンウン

배리어프리 모니터링 김민주 음악원 기악과 예술사 18

バリアフリーモニタリング キム・ミンジュ

배리어프리 모니터링 이충헌 음악원 기악과 예술사 20

バリアフリーモニタリング イ・チュンホン

배리어프리 모니터링 송수연 영상원 방송영상과 예술사 21

バリアフリーモニタリング ソン・スヨン

주최·주관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鳥の劇場

主催/主管 韓国芸術総合学校演劇院、鳥の劇場

제작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制作 韓国芸術総合学校演劇院

후원 수어통역협동조합

後援 手話通訳協同組合

文化庁委託事業 令和2年度障害者による文化芸術活動推進事業(文化芸術による共生社会の推進を含む)「共生社会東アジアモデル構築事業 演劇で編む『共に生きる』」

문화청 위탁사업 2020 년도 장애인에 의한 문화예술활동 추진사업(문화예술에 의한 공생사회 추진을 포함함)

主催:文化庁、鳥の劇場 韓国芸術総合学校 主최 : 문화청, 새극장, 한국예술종합학교